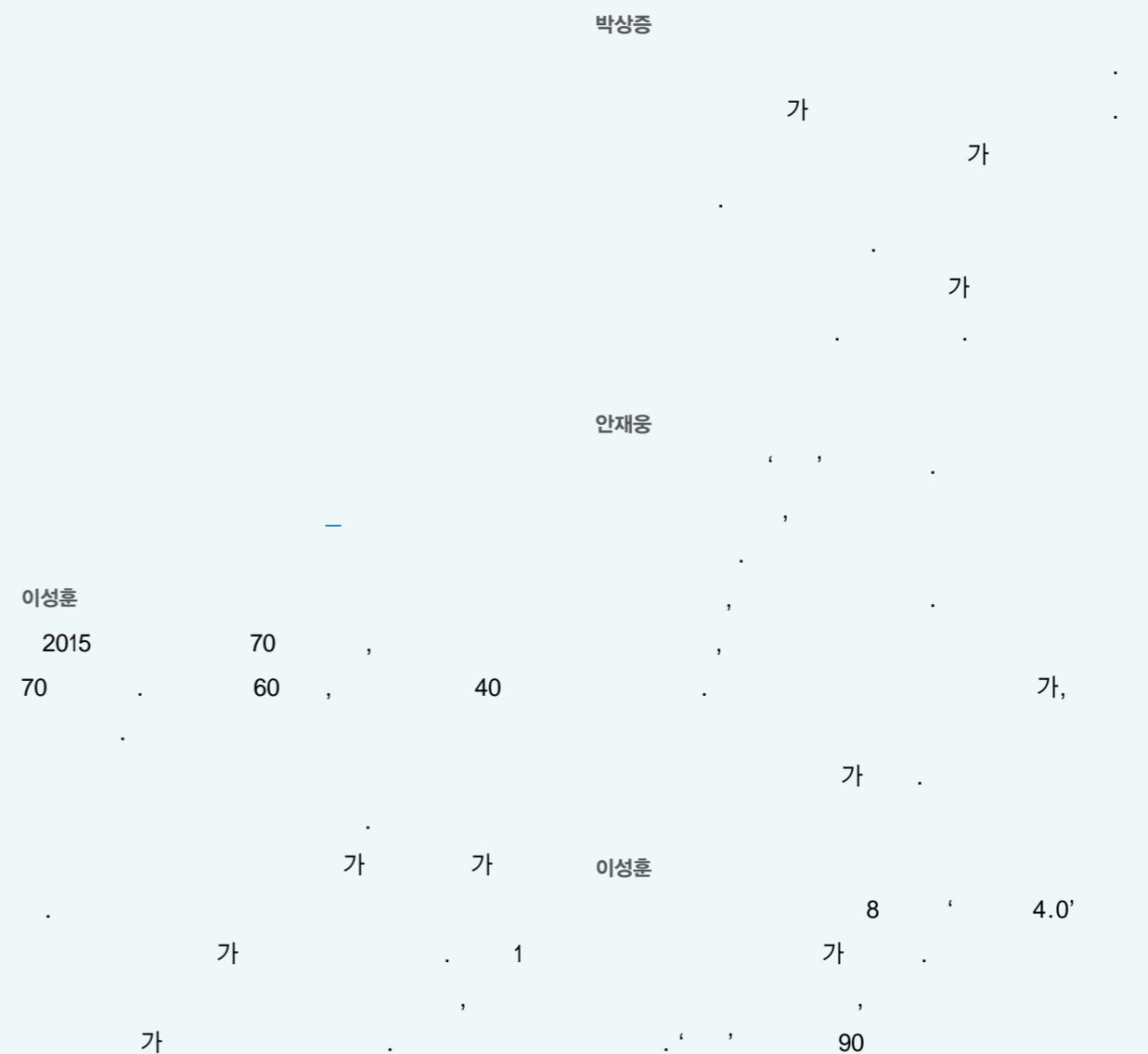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3일 '아시아 민주주의와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재웅 다솜이재단 이사장(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내외에서 수십 년 동안 활동해온 해외 민주주의 국제전문가 1, 2, 3세대의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이날 좌담회는 오랫동안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신 박상증, 안재웅 두 원로의 경험을 듣는 시간이자 아시아 민주주의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해 보는 자리였다.

아시아 민주주의와 한국의 역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좌담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재웅 다솜이재단 이사장
 진행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정리 **김남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관리실



안재웅
ODA

안재웅

이성훈

5

(ODA)

가,

(inclusive democracy)가

ODA

가 2

가

박상증

가 1

3

박상증

1980

박상증

가

가

ODA

ODA

박상증

가

안재웅

가

ODA

가

이성훈

가

가

가

가

이성훈

ODAGA

가

가

이성훈

9

가

(SDGs)

70

11

2016

2030

15

가

16

, 2016

30

가



* 여성가족부가 개발도상국 대상 ODA로 인터넷상거래 교육을 실시했다.

© 연합뉴스

민주누리